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npnews.org](http://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http://english.gnpnews.org)  
 일어판 [japan.gnpnews.org](http://japan.gnpnews.org)  
 중어판 [china.gnpnews.org](http://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0. 10. 4 ~ 2020. 10. 24 제234호



▲ 파키스탄의 빵 굽는 여인. 제공: WMM

## 부드러운 손길로 인도하실 목자

빵 굽는 여인이 익숙하게 노릇노릇 구워진 빵을 맨손으로 뒤집고 있다. 뜨거운 것도 마다하지 않는 저 여인의 손길은 사랑하는 가족의 이 부자리를, 어린 자녀의 어질러진 방을, 힘든 일을 당한 남편의 어깨를, 달리다 넘어진 아이의 무릎을 어루만졌을 것이다. 어떤 수고도 마

다치 않는 손길, 어미의 손길보다 더 따듯하고 부드러운 손길은 이미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주님은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낙심하고 넘어져 있을 때,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품에 품으시고 부드러운 손길로 인도하고 계

신다. 지금이 힘든 때라면, 주님 품에 안겨있는 자신을 곧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는 목자처럼 자기 양떼를 보살피시며 어린 양들을 자기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그 어미들을 부드러운 손길로 인도하실 것이다.”(이사야 40:11, 현대인의성경) [GPNEWS]

다음 호는 10월 25일자로 발행됩니다

## 코로나 사태, 가정교회가 일반교회보다 신앙 활동에 덜 위축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한국교회의 일반교회보다 가정교회에서 개인의 신앙 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기독교일보가 최근 보도했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개신교인 1000명(일반교회 교인 500명, 가정교회 교인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정교회와 같은 공동체적 소그룹이 일반교회와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조사한 결과, 일반교회보다 가정교회에서 기도시간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교회 교인들의 기도 시간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늘었다’가 24.5%, ‘줄었다’가 17.4%로, ‘늘었다’에서 ‘줄었다’를 뺀 순증가가 7.1% 포인트였다. 일반교회 교인들은 ‘늘었다’가 18.2%, ‘줄었다’가 17.6%로 순증가가 0.6% 포인트였다. 또한 성경을 읽는 시간도 가정교회에선 ‘늘었다’가 25.1%, ‘줄었다’가 13.3%로 순증가는 11.8% 포인트였고, 일반

교회에선 ‘늘었다’가 20.8%, ‘줄었다’가 18.8%로 순증가는 2.0% 포인트로 둘 사이에 차이를 보였다.

연구소는 “교회생활을 포함한 전반적인 신앙생활은 일반교회가 순증가 -35.6% 포인트였는데 가정교회는 -14.9% 포인트로 감소 폭이 더 적었다.”며 “이처럼 가정교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신앙생활에 대한 타격과 같은 공동체적 소그룹이 일반교회와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조사한 결과, 일반교회보다 가정교회에서 기도시간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버들의 도움’(61.3%)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인들 간의 교제도 제한받는 와중에 일반교회 대면 교제(25.4%) 대비 가정교회의 대면 교제(68.4%) 비율이 무려 2배 이상이나 돼 주목된다면서 “이러한 적극적인 교제·친교가 소그룹의 친밀성을 강화하고 공동체성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연구소는 “교회의 공동체성은 소그룹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 발견됐다.”며 “소그룹 형태가 비대면이 특징인 앞으로의 4차 산업 사회에서는 더더욱 공동체성이 강한 소그룹을 교회가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GPNEWS]



▲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교회. 출처: 게르교회 페이스북 캡처



### 마음의 눈을 밝히사 (18)

## 왜 우리는 두려워하는 존재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원형은 우리의 상상이나 경험이나 어떤 추론으로도 다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주님 안에 있었던 우리의 원형은 때가 차매 아담과 하와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우리가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통치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아담에게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특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

는 일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수준 의 지혜도 받았습니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은 아담이 부르는 그대로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생명의 특성을 이해하고 통찰력 있게 바라볼 수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정서적으로도 완전했습니다. 난생 처음 본 하와를 두려움 없이 맞았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요한일서 4:18) 우리의 정서 중 가장 완전한 정서가 사랑

인데, 아담은 두려움이 없는 완전한 사랑의 정서를 지음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공격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선택하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은 존재 자체로 복되게 지음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를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허물과 죄로 죽었다”(에베소서 2:1)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대상이 되



일러스트=김경선

어버린 우리에게 주님이 극단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에베소서 2:1)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실 뿐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

어버렸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생명을 되찾아 준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GPNEWS]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김용의.규장.2017)에서 발췌

**복음의 소리 316 전화**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옛일이 드러나면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살지?  
 죽도록 열심히 했는데 허무하신가요?

**전화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316 전화는 가까이 있습니다.

**장난전화는 삼가주세요**  
**상담전화 ☎ 1670-3160**

# 베트남, 종교 자유 주장 목회자 조기 석방



▲ 종교 자유를 옹호하다 투옥된 아다오 목사가 조기 석방됐다. 출처: USCIRF 캡처

종교 자유를 옹호하다 투옥된 베트남 몬타그나드 복음주의교회 아다오 목사가 5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4년만에 조기 석방됐다고 세계기독교연대(CSW)가 전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에 따르면, 아다오 목사는 2016년 동티모르에서 열린 종교 자유 컨퍼런스에 참석한 뒤 자신의 교회 성도들을 방문하러 가던 중 2017년 4월 '불법적으로 태국으로 사람을 데려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베트남의 중앙 고원에서 성도들의 종교 자유를 주장하다 구속된 아다오 목사는 수감 중 교도관들

로부터 구타와 학대를 당할 뿐만 아니라, 그의 교회도 당국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USCIRF는 '종교적 양심수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아다오 목사의 조기 석방을 요구해 왔다. 제임스 W. 카 USCIRF 집행위원은 이번 석방에 대해 "베트남 정부가 종교 자유를 위한 조건 개선에 진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종교 자유를 옹호하여 억류됐던 다른 개인들도 석방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 베트남 정부에 "아다오가 고향 마을로 돌아갈 경우 현지 당국이 그의 자유와 안전

을 존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글렌 그로트먼 미 연방 하원의원은 "그의 석방으로 베트남이 '무신론 전체주의' 국가에서 일반 종교와 기독교가 허용될 수 있는 나라로 전환되는 신호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9400만 명 인구 중 대다수가 불교를 믿고 있으며, 600만 명 이상이 가톨릭을, 100만~200만 명 정도가 개신교 신자인 것으로 파악된다.

베트남 헌법에 따르면,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국가안보, 사회질서 및 안보, 사회, 도덕, 지역 사회 안정'을 이유로 당국이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을 무효화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베트남 당국은 다수의 가톨릭 활동가, 블로거, 개신교 목회자들에게 일제히 형을 선고하고 투옥했으며, 지난 8월에는 르딘 루엡 목사가 '국가 전복' 혐의를 받아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GPNEWS]

## 젠더주의 기독교 대책협의회 출범

성혁명은 프랑스혁명 이후 진행된 패륜 역사의 결과

젠더주의와 성혁명, 퀴어신학을 옹호하며 이에 대항하는 후세에 견고한 학문적 지지 기반이 되어줄 젠더주의 기독교 대책협의회(가칭)가 지난달 25일 출범했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범 기념 학술포럼에서 준비위원회는 "젠더주의 기독교 대책협의회를 설립하게 된 것은 장차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갈 우리의 미래 신학도들에게 대를 이어 젠더주의와 성혁명, 퀴어신학을 막아낼 수 있는 견고한 지지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함"이라고 밝혔다고 펜앤드마이크는 전했다.

위원회는 또 "이를 통해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굳건하게 서서 기독교 신앙과 가치체계를 자자손손 후대에 전수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첫 발제를 맡은 광혜원 박사는 '젠더주의의 도전'에 봉착한 21세기 한국 기독교의 과제'라는 논문을 통해 "젠더주의는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오늘날 두 번째 성혁명에 이르기까지 약 200년 동안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전개돼온 패륜 역사의 집약적 결과"라며 "성규범의 해체

를 통한 가정의 해체, 그리고 기독교의 해체를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젠더주의의 배후사상인 마르크시즘과 네오마르크시즘에 대한 치열한 연구와 단호한 응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산주의 시조인 칼 마르크스는 그의 저서 '가족, 사적 소유, 국가의 기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를 파괴하려면 가정을 해체시켜야 하는데 가정은 일부일처제에 견고한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를 장려하고 일부다처나 일처다부, 심지어 다수를 성적으로 편력하는 폴리암오리까지 옹호하며 성규범을 해체하라고 주장한바 있다.

이날 황선우 총신대 교수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동성애 관련 구절들을 조목조목 분석하며 성경이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무거운 죄인 동성애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퀴어신학자들의 궤변을 논파했다.

황 교수는 "구약성경은 동성애에 대해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레위기 18:22, 20:13에서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이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로 기

록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창세기 19장의 소돔의 죄에 대해 퀴어신학은 소돔사람들과 같은 강제적 성폭력이 아닌 동의하에 이뤄지는 동성애는 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에스겔 16:50, 유다서 7절을 고려할 때 소돔이 멸망당한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동성애"라고 밝혔다.

동성애 위험성을 지적해 학교측의 교수직 해임 결정에 반발, 승소한 이상원 총신대 교수도 퀴어신학은 교회와 기독교권이 추구하는 양성적 성교육을 무너뜨리고 성인 지 교육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며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외설적 성행위를 자행하는 자로 묘사함으로써 신성모독까지 자행하는, 이단적이고 포르노그래피적이고 사탄적인 신학"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퀴어신학은 인간의 성별은 생물학적인 특징이 아닌 인간의 가변적인 주관적 인지에 의해 정치적으로 결정된다는 궤변론적 토대 위에서 남성과 여성 이외에 제 3, 4, 5 등의 성이 가능하고 따라서 성관계도 남녀 사이 뿐만 아니라 동성 간에도 가능하다는 동성애 정당화의 길을 열었다."고 지적했다. [GPNEWS]

##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9.20 ~ 9.26)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 코로나19 확산에 '성경공부 앱' 사용자 1000% 증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성경공부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자가 10배 증가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21일 보도했다. BSF(Bible Study Fellowship)에서 만든 '워드고'(WordGo)는 성경 읽기, 질문, 학습 노트, 오디오 교육을 결합한 2주 및 6주 길이의 성경공부 코스를 제공하는 무료 앱으로, 사용자가 올해 1~7월 사이 1000% 증가했다.

주님,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진리의 말씀, 성경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찾는 이 시대를 축복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지혜와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들과 단체들을 더욱 책임져 주시옵소서.

### 구글, 설문조사서 성별 선택지에 '제3의 성' 제시해 파문

구글이 최근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성별 선택지에 여성과 남성 그리고 '기타'를 제시해 파문이 일고 있다고 펜앤드마이크가 21일 보도했다. 구글은 20일 유튜브 영상 제작자를 뜻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별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고, 선택지로 ▲여성 ▲남성 ▲기타(선택 사항 설명) ▲답변하고 싶지 않음을 제시했다. '기타'는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남성과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의미한다.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큰 기업인 구글에서 제3의 성을 당연하다고 부추기는 일을 공허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마음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인간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 러, 성범죄자 출소 1년 만에 동거녀 두 딸 성폭행 후 살해

러시아에서 성범죄로 복역하고 출소 후 1년 만에 2명의 여아를 상대로 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21일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15일 서부 야로슬라블주 리빈스크시에서 41세 남성이 자신과 동거하던 여성의 8살·13살짜리 딸 2명을 성폭행하고 무참히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더러운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오직 죄를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알려주소서 이런 악한 죄인에게도 생명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전해지게 하소서.

### 한국, '감염경로 불분명' 환자 27.4%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감염경로를 모르는 환자 비중이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방역에는 큰 부담을 주는 수준이라고 20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최근 2주간 방역당국에 신고된 신규 확진자 1798명 가운데 27.4%에 달하는 환자는 감염경로가 불분명하다고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전했다.

주님,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코로나19를 제어할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자신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 영원한 지혜요, 능력 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소서. 위기의 순간에도 진짜 복음을 누리시는 교회를 통해 기회의 때로 바꾸어주시길 기도합니다. [GPNEWS]

##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0년 10월 5일 ~ 10월 24일

**10월 5일 ~ 10월 10일**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10.5(0~24시) ▶울산 중구 / 태화교회(박\*\*)010-9326-7767, 10.6(0~24) ▶경기 수원 / 진흥교회(남\*\*)010-8268-6879, 10.6,8~10(19~22시)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010-5186-0091, 10.9(09~17시) ▶경남 전주 / 예수로교회(윤\*\*)010-7925-6004, 그 외 2교회 진행중.

**10월 12일 ~ 10월 17일** ▶서울 광진 / 빛과소금교회(권\*\*)010-7754-1726, 10.12~16(10~20시) ▶전북 완주 / 복음기도의집(김\*\*)010-4743-9397, 10.13(11~16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조\*\*)010-5417-9933, 10.15(0시)~16(24시) ▶대전 서구 / 광야아름다운(정\*\*)010-3697-0641, 10.16(10~12시) ▶경남 김해 / 진영소망교회(김\*\*)010-4715-3727, 그 외 2교회 진행중.

**10월 19일 ~ 10월 24일** ▶경기 광주 / 문광교회(최\*\*)010-3380-5781, ▶경남 통영 / 두미교회(이\*\*)010-4734-8567,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강\*\*)010-7364-9982, 10.19(10시)~24(17시) ▶강원 고성 / 동명교회(홍\*\*)010-3191-8622, 10.23~24(05~17시) ▶전북 남원 / 은혜의샘교회(김\*\*)010-3106-3632, 그 외 1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 세뇌된 대한민국, 깨어나라!

한국 사회가 중병으로 신음하고 있다. 지난 20세기 전 인류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사회주의 병에 걸려, 건강한 면역 체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조선왕조에서 형성된 관습과 인습의 노예에서 벗어난지 불과 100여 년만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송두리째 사라지고 있다.

지난 20세기에 등장한 사회주의는 전 세계에서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데올로기 살해'라는 전대미문의 고통을 이 땅에 남겼다. 그러나 그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인 지금, 사회주의 광풍이 이 땅에 휘몰아치며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현재 이 땅에서 사회주의적 접근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분노로 가득 차 있다. 지나간 역사의 주역들이 저지른 악법과 탈법을 지적하며 이제는 정의의 역사가 씌어지고 있다고 자신만만해 하고 있다. 그들의 편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어마어마한 말 폭탄을 가한다. 필자 역시 한 지인을 통해 질문을 받았다.

“당신은 빼앗길 것도 없는데, 왜 보수의 편에 서는가? 오늘날 보수주의 세력은 다 빼앗길 것이 많아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는데 가진 것도 없는 당신은 왜 그들 편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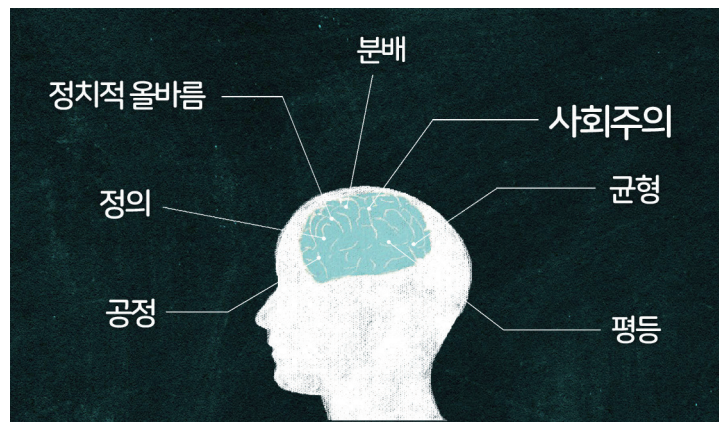
복음을 알고, 복음의 기쁨과 영광을 함께 나누면서도, 적어도 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정확히 나뉘어진다.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세상. 그러나 지금은 20세기에 러시아, 중국, 북한 등 전 세계 공산혁명 주체 세력들이 보여줬던 '가난'의 미덕은 보이지도 않는다. 온갖 기득권과 탈법적 행동으로 살아온 과거가 드러나도 '사회주의 이념'에 탐승하면 만사 오케이다.

그 사회주의적 정책과 이념이 추구하는 가치가 가져오는 결과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어휘들이 있다. 정의, 공정, 균형, 평등, 공공, 배려, 나눔... 지금껏 쌓았던 적폐들이 정리되면 이런 가치들이 이 땅에서 회복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가치 실현을 위해 전제되는 명제가 있다. '부

(富)는 악(惡)한 것이다.' 그런 테제(These, 정치적·사회적 운동의 기본 방침이 되는 강령)가 있어야 그러한 이념 실현이 정의로워진다.

해방 이후 북한 지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세력은 '무상 몰수 무상 분배'를 외치고, 토지 개혁을 실행했다. 덕분에 북한의 지주 계층은 일거(一擧)에 사라졌다. 그들의 땅을 공산주의로 드러난 사회주의 세력이 흡수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땅을 가졌다는 '죄'로 자신의 터전에서 쫓겨나, 남으로 남으로 향해야 했다. 무려 100만 명이상의 월남민은 공산주의의 잔혹함을 가슴에 깊게 새겼다. 오늘날에도 이 땅에서 땅 부자, 집 부자는 그런 평가를 받으며, 점증(漸增)하는 세금 폭탄에 잠을 설치고 있다.

1917년 사회주의 혁명으로 러시아를 무너뜨린 블라디미르 레닌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 계급의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정당 정신'을 만들어냈다. 이 정당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당 노선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도록 '정치적 올바



© 복음기도신문

름'(Political Correctness, PC)이라는 정치적 정의(Justice)를 내세웠다.

이 같은 정의감에 휩싸인 소련 공산당은 지주, 자영농, 귀족, 특정한 인종과 민족과 같은 적대 계층을 대상으로 끔찍한 감금, 고문, 학살을 자행했다. 그리고 레닌은 PC에 충실한 지식인 집단을 부농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파견해 부농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적개심과 질투를 부추겨 이들의 재산을 몰수하라고 선동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부농과 그 가족들은 살해, 강간당하거나 엄동설한에 허허벌판인 시베리아로 유배되어갔다.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했다. 그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일까. 톨스토이

(1828~1910)는 평생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지 않고 흘러보냈다. 이 땅의 부자로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동시에 품을 수 없음을 절감했기 때문이라. 만약 레닌 치하에 톨스토이가 살았다면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은 톨스토이의 청빈한 삶은 부에 대한 자발적 포기, 자유로운 선택에서 비롯됐다는 것. 무상 몰수가 아니라, 자발적 내어놓음을 통해 그는 자기 소유를 버렸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은혜가 임한 자가 자발적인 내어놓음으로 함께 공유하는 초대교회를 그리고 있다. 무상 몰수, 강제 징수로 인한 내어놓음을 성경은 한 번도 권고한 적이 없다. [GPNNEWS]

김갈렘



## 어둠에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티베트 승려의 간증

티베트의 산 속 마을에서 태어난 텐진 라흐파(Tenzin Lakhpa)는 마을에서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14대 달라이 라마인 텐진 가초(Tenzin Gyato)의 이름을 가져왔다. 그가 15살 때, 그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불교적 삶과 섬김을 가르치기 위해 그를 수도원으로 보냈다.

그러나 수도원의 삶은 비참했다. 아침에는 다른 승려들과 함께 길에서 음식을 구걸했고 매일 수도원에서는 언어, 신체, 성적으로 학대를 받았다. 그는 나이 든 승려들과 지도자들 중에는 동성애자와 소아성애자들이 많았다고 했다. 수많은 밤, 텐진은 수도원 곳곳에서 들려오는 어린 소년들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로 인해 잠자기가 어려웠다. 그는 독신으로 알고 있었던 많은 지도자들이 수도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숨겨놓은 아내와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환멸을 느꼈다. 20년 동안 수도원에서 노예처럼 지내던 그는 인도에서 달라이 라마를 몇 번 만났지만 그의 내면에는 평화가 자리하지 못했다.

### 불교적 삶을 배우기 위한 수도원 삶은 고통 그 자체

그는 복인도에 살고 있는 한때

승려였던 친척을 찾아갔다. 텐진은 그가 미국으로 이사한 뒤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예수님은 위험한 존재이며 그와 관련을 맺는다는 것은 티베트인으로서의 삶은 물론 불교 자체를 통째로 뒤엎을 수도 있다고 훈련받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몇 년간 그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어느 날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티베트로 떠났다. 여권이 없었던 그는 중국 국경에서 체포되고 공안에게 구타당한 뒤 6개월간 수감됐다. 그곳에서 그는 결핵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티베트어를 하는 외국인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다. 의사는 옷깃에 작은 십자기를 달고 있었다. 텐진은 그 십자기의 의미를 묻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답했다. 텐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에 흥분했다. 그러자 의사는 그에게 티베트어와 중국어로 된 기독교 서적 몇 권을 주었다.

어느 날 텐진의 상태가 악화되자 의사는 그에게 치료를 위해 기도해도 되겠냐고 물었다. 텐진은 동의했고, 당시 일어났던 일을 말했

다. “의사는 자기의 오른손을 나의 오른팔에 올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나는 무언가 나의 팔에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건 마치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불과 같았다. 그것은 나의 어깨와 가슴, 그리고 온 몸을 지났다. 나는 그 의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의 기도에는 내 기도에는 없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힘이 있었다.”

그 사건은 텐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날 밤, 그는 꿈을 꿴다.

###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날 밤의 기억

“하얀 예복을 입은 한 남자가 꿈에 나왔다. 그는 사방으로 광채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가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손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완전히 아물지 않은 흉터가 있었다. 나는 짧게라도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고자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는 '나를 따르라.'고 말했다. '예수님이 세요? 당신이 내게 진리로 가는 길을 보여줄 사람인가요?'라고 물었다. 그는 다시 '나를 따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길을 찾을 사람이 없다.' 나

는 '예,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텐진은 병원에 남아있던 몇 주간 틈틈이 성경을 공부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그의 회복을 놀라워했고 이것이 기독교인 의사의 기도 덕분이라는 것을 알았다.

텐진은 집으로 돌아간 뒤 공부한 것들을 수도원 친구들에게 나눌 것에 대해 부담을 느꼈다. 그는 승려들과의 특별 모임을 소집하고, 수도원장 타쉬 라마와의 논쟁을 요청했다. 예수님에 대해 언급하는 순간 승려들이 격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텐진은 마음속에서 초자연적인 평안을 느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고 그를 절대로 버리거나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설령 그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수백 명의 승려들이 논쟁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 일각에서는 텐진 이 라마의 지도력에 도전해 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고 추측했다. 텐진은 심호흡을 하며 담담하게 말했다. “내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내가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 티베트 승려들의 모습.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출처: unsplash.com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그분의 사랑은 고통이 끝나는 길로 이어지며, 그분의 이름은 예수다.”

몹시 화가 난 타쉬 라마가 “당장 그를 묶어라!”고 소리쳤고 수십 명의 승려들이 텐진에게 달려들며 “기독교인이다! 죽여라!”라고 외쳤다. [GPNNEWS]

(출처: 아시아 하베스트) 번역=본지 국제팀

(뒷 이야기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gnpnews.org)에서 이어집니다.)

기획 | 창조 이야기 (41)

## 20세기 말까지 공룡은 발견됐다

본지는 창조론 전문가인 미국 켄트 호빈드 박사의 창조론 강의를 요약, 소개한다. 호빈드 박사의 강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흥미롭게 설명하며, 진화론이 거짓 믿음 체계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편집자>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 공룡도 만드셨다. 사탄은 생각했을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공룡을 사용할 방법이 있을텐데.” 하지만 사탄은 공룡으로 아담을 속일 수는 없었다. 아담이 그 공룡의 이름을 지었기 때문이다. “아담, 공룡이 수백만 년 전에 살았다는 것을 알아?” 사탄의 질문에 아담은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저 뒤뜰 체리 나무 뒤에도 한 마리 있는데 수백만 년 전이라니 무슨 말이야?”

사탄은 노아도 속일 수 없었다. 노아가 매일 공룡의 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4000년 동안 공룡은 점차 희귀해졌다. 죽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희귀해져 갔다. 1800년 초 거의 멸종했고 누군

가 그 뼈를 찾아서 조립해 박물관에 전시했다.

사탄은 그날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 생물은 항상 나와 같이 살았다는 것을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지만 이 사람들은 모르지.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이것이 수백만 년 전에 살았다고 해야지. 그리고 그들이 그걸 믿으면 성경을 의심하게 될거야.” 그것이 아주 잘 먹혀들었다. 그러나 그 공룡을 수백만 년 전이 아닌 불과 몇 십 년 전에도 만난 사람들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늑인 리쿠알라는 아프리카 중앙에 있다. 1700년대에 그곳으로 간 선교사들이 그 늑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공룡이 아직 그 늑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1910년에 뉴욕 해럴드가 ‘여전히 아프리카의 늑에 살고 있는 공룡’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1948년 신문에 ‘아직 아프리카에 공룡이 살아 있을 수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유명한 사냥가 가블러가 앙골라 여행에서 돌아와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도 케이프타운의 신문 ‘케이프

알거스’지에 이렇게 알렸다. “공룡에만 걸맞는 거대한 크기의 동물이 있었는데 원주민들은 그것을 ‘치페키’라 부르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누구리’라고 한다.”

1980년에 로이 메칼이 그곳을 탐사했을 때 원주민들이 ‘마함바’라는 동물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가 그게 뭐냐고 물었을 때, 원주민들은 악어를 가리키면서 그게 마함바라고 했고, 그것을 모래에 그렸는데 50피트(약 15m) 길이였다. 또한 현지인들은 ‘모클리, 암벰비’라는 동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그들에게 아파토사우루스의 사진을 보여 주면 그들은 그것이 ‘모클리, 암벰비’라고 말한다. 원주민들은 이 동물들이 물에 살고 아주 희귀하다고 주장한다. 그 동물들은 대부분 아주 이른 아침이나 아주 늦은 밤에 나타나는데,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식물은 말뚝보 풀이다. 시카고대학교의 미생물학과 교수인 맥칼 박사는 이것을 자세히 연구하고 ‘살아있는 공룡?’이라는 책을 썼다. 그는 진화론을 믿지



▲ 콩고 공화국 리쿠알라의 늑지대. 출처: vivreaucongo.com 캡처

만 아프리카의 늑 속에서 아직 살고 있는 공룡의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남부 아프리카에 있는 거대한 아마존 정글에 1907년에 브라질과 페루의 국경을 정하기 위해 영국군이 퍼시 대령을 보냈다. 그는 왕실 공학자로서 사실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베니 늑에서 그는 디플로도쿠스로 여겨지는 동물을 보았다. 원주민들과 부족들은 그것이 아직 그 늑에 살고 있다고 했다. 중령의 아들이 그 발자국을 스케치했다. ‘사이언티픽 아메리카’가 진화론에 넘어가기 전인 1883년에 이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볼리비아의 라 파즈에 있던 브라질 공사가 리오의 외무부장관에게 베니

강에서 36발을 맞고 죽임을 당한 기이한 도마뱀의 그림의 사진들을 보냈다. 볼리비아 대통령령으로 보존된 그것의 마른 사체가 라 파즈로 보내졌다. 그것은 주둥이에서 꼬리 끝까지 39피트(약 12m) 길이였다. 그것은 비늘감으로 덮여 있었고, 목은 길고 배는 커서 거의 땅에 끌렸다. 그 짐승을 조사했던 길베티 교수는 그것이 사라진 종의 하나라고 했다.” 브라질과 콜롬비아 국경에 있는 관리가 1933년에 길이 98피트(약 30m), 지름 2피트(약 0.6m)에 2톤이나 나가는 뱀을 죽였다고 했다. 로이터 통신은 길이 130피트(약 40m)의 뱀에 대해 보도했다. 바로 1997년도에 말이다. <계속> [GPNEWS]



선교 통신

### 무슬림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리 없다”

지난 7월 31일은 회교도들의 명절인 ‘희생제(이드 알 아드하)’ 날이었습니다. 회교도들에게 희생제는 라마단 금식월 이후에 있는 르바란과 함께 가장 크게 축하하는 명절입니다. 이들의 희생제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제물로 드리려는 순간, 알라가 아들 대신 양을 바치라고 했다는 꾸란 내용에서 유래하는 아주 중요한 회교 명절입니다.

회교도의 5대 의무 중 자선의 의무(자카트)를 희생제 때 실천하면 평소보다 수십 배의 복을 받는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양 한 마리는 한 사람 몫의 죄를, 가격이 훨씬 비싼 낙타와 소는 일곱 사람 몫의 죄를 대신한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제 날에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이 양이나 소를 희생제물로 내어 놓습니다. 보통 마을 단위로 회교사원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희생제물을 잡아서 고기를 나눕니다. 도축한 고기의 1/3은 가족을 산 사람이나 가족이, 1/3은 이웃이나 친척이, 1/3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희생제 명절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변화



▲ 인도네시아 교회에서 찬양을 드리는 성도들.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 복음기도신문

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농장이나 시장을 돌아다니며 제물로 도축할 소, 양, 염소를 직접 구매했지만, 올해는 온라인 쇼핑으로 주문해 집으로 배달 받는 비대면 거래가 주로 이뤄졌습니다. 또한 예년보다 축소된 규모로 마스크를 쓰고 사원에 모여 희생제가 진행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희생제를 통해 죄를 씻기 원하는 회교도인들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의 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죽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십자가를 거부합

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생명의 길임을 깨닫는 영적인 돌파가 회교도들에게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 이슬람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전 이슬람 출신 자매의 간증

얼마 전에 강성 이슬람 종족 출신의 한 자매의 눈물어린 간증 동영상 SNS에 올라왔습니다. 회교도 사회는 강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감금하여 회교 신앙 교육을 다시 하면 돌아올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 자매는 본인을 소개하며 본인은 누구의 강

요에 의한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 자매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자녀들과 생이별을 하고, 가족과 마을 공동체에서 쫓겨났고, 안전을 위해 피신 중에 있습니다. 이 자매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혹시 있을 회교 사회로부터의 있을 피해를 대비해서 그 자매를 고발하고 저주하고 인연을 끊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으로 해당 지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회교 사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배교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일이 영향력을 갖지 않도록 가족마다 마을마다 신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회심한 이 자매를 보호해 주셔서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세밀한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주세요. [GPNEWS] 인도네시아=영광나라

#### \* 선교지 소식을 제보해 주세요.

긴급한 열방의 상황이나 숨겨져 있는 부흥의 소식을 알려주세요. 독자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70-5014-0406~8, 010-6326-4641



### 십자가에 못 박힌 삶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에워싸고 밀 때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했다. 큰 무리에 가로막혀 그분께 나아가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노력해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나?’고 물으셨다. 제자들은 무리가 에워싸 밀고 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한 말은 ‘누가 믿음으로 내 옷에 손을 대었나?’는 뜻이었다.

예수님과 함께있던 제자들은 에워싸 미는 무리 속에 있었다. 하지만 혈루증 환자였던 여인은 혼자였다. 그녀는 믿음과 사랑으로 혼자서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다가가 그분의 기적을 체험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은 복된 삶이지만 동시에 고독한 삶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줄 수 없다. [GPNEWS]

십자가에 못 박혀라 (A.W.토저.2015)에서 발췌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 몽골인을 도우며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주한 몽골인의 피난처 **어치르바트, 불강 부부(그안에진리교회)**



© 복음기도신문

어치르바트, 불강 부부는 몽골인이다. 20년 전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지금은 한국에 온 몽골인들의 피난처가 돼 주고 있다.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삶으로 전하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한국에는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어치르바트(이하 바트): “한국엔 20년 전에 돈을 벌기 위해 왔어요.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라 저 혼자 한국에서 일을 했죠. 아내와 결혼하고 둘이 한국에 온 것은 2007년이에요. 그때는 우리 둘 다 일하며 살아가는 게 전부였어요. 그러다 아내는 2008년에 일하는 곳에서 만난 목사님을 통해 전도를 받게 됐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마침 그 교회에는 몽골인 예배가 있었어요. 저도 아내를 통해 함께 교회에 나왔어요.”

불강: “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제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방언도 받고 여러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은 잘 몰랐어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방언은 하지만 죄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게 괴로웠어요. 그렇게 목마름이 찾아왔어요. 그즈음 사모님의 소개를 받고 복음학교에 참석하게 됐어요. 그곳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저는 그때까지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런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듣키는 것이 부끄러웠는데, 그때 그런 저의 옛 생명이 죽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런 제가 죽었다는 것이 실재가 됐어요. 너무 가볍고 새로워진 느낌이었어요. 기도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이 확실

히 깨달아졌어요. 은혜를 많이 받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쓰던 물건들이 모두 죽은 사람의 물건처럼 느껴졌어요. 제 물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신기했어요.”

## 목마름 끝에 복음을 만나다

- 옛 생명이 죽은 반응이었나 봐요? 그런 아내를 보면서 어떠셨어요?

바트: “아내가 술을 아예 안 먹고 변화된 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최근에서야 술을 끊게 됐어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술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고 오히려 다음에 더 큰 고통이 찾아온다고요. 이전에는 즐기며 사는 게 행복인줄 알았는데 지금은 아내와 같이 예수님을 함께 닦아가며 사는 것이 행복인줄 알죠. 몽골남자들은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교회 다니는 것을 안 좋게 보거든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밥 얻어먹으려고 교회 간다고 생각해요. 모자란 사람들이나 교회 간다고 생각하죠. 그들에게는 제가 바보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나 친구들이 저의 삶을 보고 변화되길 바라고 있어요.”

- 복음으로 변화된 생명이 이웃에게 흘러가기를 바라시는군요.

바트: “이전에는 내가 변하지 않아서 아내와 많이 싸웠지만 지금은 아내가 좋아하는 주님의 일을 같이 하면서 싸우지 않게 됐어요.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서 아내와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됐고, 요새는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기도해요. 처음엔 아내가 성경을 읽으라는 뜻으로 성경을 속 밑에 놓으면 일부러 더 안 봤어요. 억지로 믿으라고 하는 것 같아서요.”

불강: “이렇게 인터뷰 하는 것 자체가 많이 변한 거예요. 남편은 제가 신앙훈련을 받는 것도 많이 반

대했어요. 하루는 너무 남편을 믿게 하려고 하는 제게 주님이 내버려둬도 된다는 마음을 주신 적도 있어요. 요한복음에 베드로가 요한은 어떻게 되겠냐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그제 네게 무슨 상관이라고 하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제게도 주시면서 남편 상관 말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어요.”

- 지금은 많이 지지해주시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사이 무슨 변화가 있었나요?

바트: “교회에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변화가 없다면 지옥에 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번은 몽골 자매가 내가 많이 변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전에는 세상 얘기만 했었는데 지금은 복음을 대놓고 나눈다고요. 남의 입에서 이런 말을 들으니 나도 믿음이 생겼구나 생각하게 됐어요.”

## 한국의 몽골 사람들에게는 119 역할

-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계시군요?

불강: “한국에 들어온 몽골인들이 많아요. 그들을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국에 온 몽골 사람들에게 119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오래 살다보니 도와 달라고 하는 연락이 많이 와요. 어느 날은 새벽에 자고 있는데 집 문을 두드리고 집으로 들어와서 공항에서 오는 길에 돈을 잃어버렸다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남편이 새벽에 일어나 함께 경찰서에 가서 도와줬죠.”

바트: “전화 통화로 통역을 해주는 것은 다반사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공항까지 어떻게 가냐고 다짜고짜 문자를 보내는 때도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냥 도와줘야죠.”

- 한국에 온 몽골 사람님들에게는 두 분이 큰 힘이 되시겠네요.

불강: “한 2년 정도는 우리 집이 모텔처럼 된 적도 있어요. 몽골에서 온 사람들이 자고 갔어요. 그들은 다 한국어도 모르고, 돈을 벌 수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 밥도 먹여주고, 돈도 빌려주기도 했어요. 돌려받지 못하기도 했죠. 그래도 그때는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라 기쁜 마음으로 섬겼어요. 우리 집에서 17명까지 함께 살았던 적도 있었어요. 어려우니까 우리가 도와 줘야겠다는 마음뿐이었어요.”

- 몽골인들의 피난처시네요. 사건 사고가 많겠어요.

불강: “하루는 몽골에 있는 조카에게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 온 몽골 형제가 심장이 갑자기 아픈데 병원에 같이 가줄 사람이 없다고 도와달라고요. 같이 가서 통역도 해주고 복음도 전했어요. 예수가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몇 번 교회에 나오고 기도도 같이했죠. 심장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 이후로는 다시 안 아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이 분에게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 주님이 내게 보내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놀라운 일이네요.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불강: “최근에 몽골의 한 부부가 계속 유산이 되는 바람에 아이를 낳고 싶어 한국에 나왔어요. 두 번을 실패하고 셋째 아이를 임신 6개월 상태에서 한국에 왔는데 그나마 조산하는 바람에 인큐베이터에 아이가 있게 됐어요. 그때 저와 같이 유튜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매가 병원에서 통역 일을 하고 있을 때여서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고요. 그 엄마가 소망도 없이 매일 울고 사정이 딱하다면서요. 그래서 집에서 양고기를 끓여서 가지고 갔어요. 몽골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양고기물을 먹거든요.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에 대해 듣더니 걱정하는 대신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대요. 우리 교회에도 나오고 함께 기도도 했어요. 그때 병원비가 1억 원이 넘게 나왔는데, 여러 단체와 통로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병원비를 다 갚고 몽골로 돌아갔어요.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 그런데 유튜브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고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불강: “하나님이 인터넷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그때는 인터넷에 빠지지 않으려고 SNS도 자제하려고 하던 터여서 이것이 주님에게 온 마음

인지 기도했어요. 제가 신학을 한 것도 아닌데 복음을 전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주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후 12:9)는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이 기도하는데 용기를 주셔서 몽골어로 둘이 대화하면서 영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 유튜브에서 몽골어로 복음을 전하다

- 이런 사역은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불강: “올 초에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고 어색해서 몇 번 안 하다가 3월에 첫 영상이 올라갔어요. 영상을 시작할 무렵 중보기도학교 훈련을 함께 받은 집사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몽골어로 된 유튜브 영상이 있다고 물어봤어요. 그분 오빠가 선교사님이신데 몽골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면 물어보셨다더군요. 그런 영상이 많이 없기도 했지만, 이 단에서 만든 영상이 많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이 필요하기도 했어요. 집사님에게 조금 있으면 내가 그런 것을 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집사님도 주님이 인터넷 사역을 후원하라는 마음을 주셨다면 이 일에 후원하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너무 신기해서 “굳이 인터넷 사역이요?”라고 물었죠. 현금을 받고서 용기를 얻었어요. 주님이 정말 하라고 하셨나보다 하면서요.”

- 앞으로 계획이나 기도제목 말씀해주세요.

불강: “몽골의 다음세대에 대한 마음을 주세요. 몽골에는 성폭행당하고 가족에게서 학대 받는 아이들이 많아요. 가난하고, 부모의 술중독으로 버려진 아이들이 많은데 국가에서는 이들을 케어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몽골에서 다음세대를 위한 고아원 같은 센터를 시작하려고 해요. 몽골은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시골에 있는 땅을 나눠 줘요. 저희가 받은 땅이 있어서 그곳에서 고아원을 세우려고 기도 중에 있어요. 몽골의 다음세대들이 하나님을 믿는 다음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GNNEWS] Y.K.

<뒷 이야기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gnpnews.org)에서 이어집니다.>



▲ 유튜브에서 복음을 전하는 불강 집사. 출처: 유튜브 채널 сайнмэдээ 영상 캡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참된 예배자 (6)

# 예배를 빼앗기면 교회는 끝이다

다윗은 예배의 사람이었다. 어떤 역경도, 시련도 일평생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막지 못했다. 무인지경 광야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을 배웠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의 온 군대가 찢쩍떨 때, 16살짜리 소년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다. 그가 왕이었을 때도 그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다윗성에 옮겨오는 것이었다. 그는 최고의 영광의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결코 놓치지 않았다.

그런 다윗이 예배를 빼앗겼던 치명적인 순간이 있었다. 그는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

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불드소서”(시 51:10~12)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자로 쫓겨나는 것이었다.

그는 회개한다. “주여 이 끔찍한 죄악의 저주에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빼앗긴 찬송을 돌려주소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인 줄 압니다(시 51:14,17).” 예배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했던 죄를 회개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죄가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기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의해 살도록 지어진 우리가 예배를 빼앗긴다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서 끊어진 것과 같다. 마치 생수가 솟아나는 샘물이 막힌 것처럼 기쁨과 생명과 소망의 근원이신 주님과 끊어져 우리 영이 숨을 쉴 수 없는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



일러스트=이예민

이다. 예배가 살아있는 한 시련이나 역경, 고난이 우리를 침몰시킬 수 없다. 주님의 능력과 돌보심, 임재가 있는 한 우리는 망할 수 없다.

다니엘은 예배 때문에 사자 굴에 들어갔다. 그는 몰래 숨어 예배하지 않았다. 죽을 줄 알면서 예루살렘


쪽으로 문을 열어놓고 습관을 따라 하루에 세 번씩 예배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 느부갓네살 왕이 “고집부리지 말고 잠깐만 절해라.”고 했을 때도 그들은 고백했다. “왕이 풀무불에 넣는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 능히 건질 수 있으려니와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희에게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엘리야 선지자는 홀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맞섰다. 이것도 누가 참 신이냐는 예배의 싸움이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의 예배에 대한 싸움이었다.

일제시대, 한국교회는 교단 차원에서 신사참배를 하며 예배에 타락했다. 당시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순교했던 주기철, 손양원 목사는 교계에서 괴롭힘을 당했다. 교회가 형식은 남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힘을 잃어버리면 거세당한 것과 같다. 예배에 거세를 당하고 타협하면 교회는 끝이다. 하나님은 그분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예배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신다. (2018년 2월) <계속> [G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복음기도총서2 GPM  
GOSPEL & PRAYER MEDIA

이 길외에 다른 길이 남아 있지 않을 때,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반응으로**



GPM  
최신간

죽을 때 죽더라도 싸우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 있다. 이 길외에 다른 길이 남아 있지 않을 때, 죽음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때가 있다. 느헤미야가 맞닥뜨린 상황은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 그는 비상한 각오를 한다. 보장된 미래를 기꺼이 포기하고 거칠고 피 흘리는 매일의 초조한 싸움 가운데로 뛰어든다. 하지만 그를 환영하거나, 그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홀로 사랑하는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포기할 수 없는 열정으로 다 폐허가 된 조국으로 간다. 그리고 그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시기를 가장 뜨겁게 쏟아 붓는다.

김용의 지음 | 값 9,000원

복음과기도미디어

구입문의

야긴과보아스 Jakin and Boaz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알림

복음기도신문 창간 10주년 기념 EVENT

복음기도동맹군\* 은혜  
사업체 광고 게재

복음기도신문이 주님의 은혜로 올해 창간 10돌을 맞았습니다. 2010년 출범한 복음기도신문이 10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독자 여러분을 찾아가 만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의 통로 되신 동역자 여러분의 격려와 지지 덕분이었습니다.

이에 본지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독자들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저희에게 허락된 여건에서 복음기도동맹군 여러분이 부르심의 현장에서 다루고 있는 사업체나 제품 정보를 신문지면이나 인터넷신문 사이트를 통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상** | 복음기도신문 1년 이상 정기구독자 (복음기도동맹선언문 및 행동강령 서명자)

**신청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 신청

**신청내용** | 신청자의 회사 소개나 제품정보를 본지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게재(단, 본지가 마련한 성경적 세계관에 부합하지 않는 광고는 게재하지 않습니다)

**게재조건** | 은혜로

**문의** | 010-6326-4641, gnmedia@gnmedia.org

\* 복음기도동맹군이던 2011년 복음기도동맹 주관으로 열린 다시복음앞에 대회 이후, 복음과 기도를 삶의 핵심가치로 삼고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살기로 결정한 성도들의 호칭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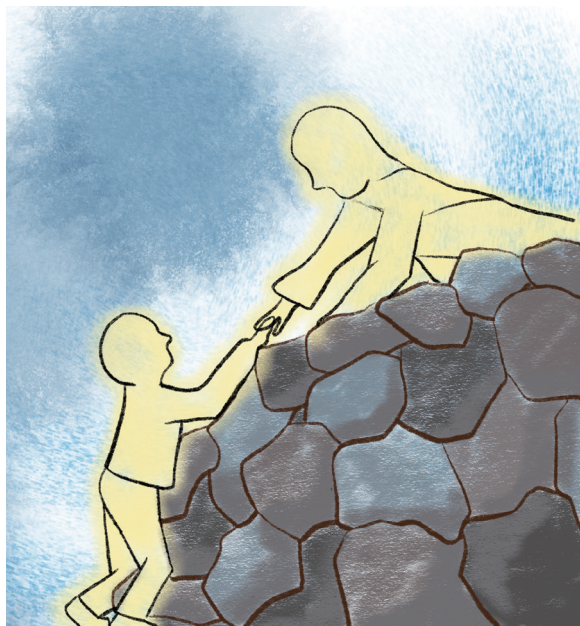
복음과기도미디어  
Gospel & Prayer Media



# ‘나도 이 개처럼 주님께 순종하고 싶다’

내가 교사로 있는 학교에는 두 마리 개가 있다. 하루는 개를 돌보시는 선생님과 개들과 함께 산책을 나섰다. 산책 가는 것을 알고 개들이 반가워 날뛰면 선생님은 솔뚜껑 같은 손으로 수놈의 머리를 강타하신다. 그러면 수놈은 진정한다. 수놈이 워낙 힘이 좋아서 자기 마음대로 갈 때는 선생님은 있는 힘껏 목줄을 당겨 수놈을 제압한다. 수놈은 ‘책’하고 충격을 받지만 곧 주인의 뜻을 알아채고 익숙히 다시 갈 길을 간다.

한번은 수놈의 털에 진드기가 계속 붙어서 개를 계곡으로 끌고 가 목욕을 시키시는 모습을 보았다. 선생님은 큰 개의 등가죽을 잡고 들어서 냇다 계곡물에 던졌다. ‘퐁!’ 그러자 수놈이 허겁지겁 헤엄쳐 바위 위에 있는 선생님께로 간다. 선생님은 다시 등가죽을 잡고 냇다 계곡물에 던진다. 그렇게 세 번을 반복한다.



일러스트=고은선

수놈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지만 이빨을 보이지 않고 묵묵히 젖은 털을 털다. 나는 그 모습이 재밌어서 혼자 웃다가 갑자기 ‘나도 이 개처럼 주님께 순종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이 개들은 주인을 알아보고 신뢰하여 주인의 뜻에 순종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주님께서 나를 향해 도전하시는 것 같았다.

‘아들아, 내가 너를 이렇게 거칠게 다루어도 이 개들처럼 온순히 나를 따를 수 있겠니?’

산책을 다 마치고, 개들의 배설물을 치우고, 밥그릇을 닦고, 개들 몸에서 진드기를 떼어내시는 선생님의 손

길을 보니 주인과 개 사이의 친밀함이 느껴졌다.

주인의 주권 아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의탁하여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보호, 공급, 그리고 자유, 평안. 이번에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향한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나를 통해 아이들이 변하는 것이나 또는 내가 변하는 것 등은 기대하지 않는다. 내가 기대하는 것은 매일 아침 육신으로 일어나 죄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늘의 영으로 덧입혀 주셔서 의인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다. 매일의 승리에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 남고, 주님이 전부가 되는 일, 그것만을 기대하며 이곳에서의 시간을 온전히 누리고, 또 주님을 따르고 싶다. 이루어질 주님만 기대한다.

[GPNEWS]

양탕자

## 그림 묵상



### 옛 생명의 흔적이 발견될 때

세상 속에서 뒹굴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으로 길을 나섰다. 비장한 마음과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나섰다. 길은 좁고 험작했다.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번 한 번만 눈감아주시면 안돼요?” “이만큼 했으면 됐지,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돼요?” “새벽예배, 봉사, 헌금, 안 해본 것이 없는데 왜 나만 되는 일이 없어요?” 당황하며 울부짖는 내게 주님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나’를 보여 주셨다.

옛 생명의 흔적이 발견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 [GPNEWS]



그림 이수진

## 부흥을 위하여

# 통일부, 북 인권 실태 공개 지연... 인권백서 발간도 중단 위기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독자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한다.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의식, 그동안 법률에 따라 진행된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 발표를 지연시키고 있다.

최근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17일 북한 인권 실태를 다룬 보고서를 준비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힌 다음 날 공개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 방송은 통일부 당국자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북한 인권 실태를 다룬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발간할지 검토할 시기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현재 보고서의 발간 시점에 대해서도 명확

하게 밝히지 않았으며 공개 입장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통일부가 북한 인권 실태 조사를 일방 중단함에 따라 현재 백서 발간 중단 위기에 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센터가 현재까지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북한인권법 13조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과 증진을 위한 정보 수집, 연구, 보존, 발간을 담당하는 센터가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한국 내 북한인권, 탈북민 단체들이 결성한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탈북민단체 탄압 공동대책위원회’ 신희석 대책위원은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제정과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출범 당시 약속대로 유엔에서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중대 인권 침해로 인정된 북한 인권 상황을 기록하

기 위해 이와 관련된 분석 보고서들을 조속히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

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도 “4년여 동안 보고서 발간을 하지 않던 센터가 연

지난 8월 중순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가족에게서 돈과 사진을 전달받은 함경북도 온성군의 한 주민이 간첩혐의로 도 보위국에 긴급체포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17일 보도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17일 간첩혐의로 체포된 주민은 도 보위국 조사에서 돈 기록주민들을 국경지역으로 불러들여, 탈북해서 남조선과 중국에 살고 있는 가족 탈북민들과 영상통화나 국제통화를 연결해 가족간 대화가 가능케 해준 사실을 자백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체포된 주민의 가택수색 결과 그동안 사용했던 불법 중국 손전화기 두 대가

내 발간하겠다는 발표를 번

준 사례”라며 “인권을 외면한 평화는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GPNEWS]

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도 “4년여 동안 보고서 발간을 하지 않던 센터가 연

내 발간하겠다는 발표를 번

준 사례”라며 “인권을 외면한 평화는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GPNEWS]

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도 “4년여 동안 보고서 발간을 하지 않던 센터가 연

### 탈북민 송금 도와준 브로커, 간첩혐의로 체포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도 보위국은 간첩혐의자 주민이 사용하던 중국 손전화에 깔린 위젯을 해독해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내용을 모두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도 보위국이 해독한 중국 손전화 위젯 문자내용에는 북한 내 현황과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때문에 함경북도 보위당국은 정황상 송금은 위장일 뿐 사실상 남조선에 정보를 제공한 간첩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조선과 연관된 문제는 당국이 절대로 묵과하지 않는다며 이번에 체포된 주민은 총살이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

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또 “요즘 들어 국경지역 주민들을 대하는 보위당국의 행태를 보면 국경연선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모두 간첩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라며 “이번 사건도 대

북제재와 신종 코로나 사태로 국경이 완전 봉쇄되면서 생계가 어려워진 주민들의 불만을 공포분위기로 불식시키려는 공포정치의 연장선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PNEWS]



▲ 중국 연길의 북한 접경지역. ©복음기도신문

뷰즈 인 시네마 Views in Cinema 오버커머 (OVERCOMER)

#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과 아픔을 겪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해가고 싶은 순간이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의 때다. 영화 오버커머에서 주인공 존 해

리슨은 그러한 인생의 위기를 맞으며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 또 다른 주인공인 해나 스콧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아픔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본질을 찾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미국 조지아주 알바니에 있는 셔우드 침례교회(Sherwood Baptist Church)목회자로 섬기고 있는 알렉스 캔드릭, 스티븐 캔드릭 형제는 2003년에 셔우드 픽처스(Sherwood Pictures)를 만들고, 워룸(War Room)에 이어 여섯 번째 기독교 영화를 제작했다.

영화의 주인공인 존 해리슨은 브룩서 기독교 학교의 농구 코치이자 역사 교사이다. 그의 팀이 아쉽게도 농구 경기에서 준우승에 그쳤고 다음 해에는 우승하기를 바라게 된다. 그때 위기 상황이 발생한다. 그 학교 학생 다수의 부모들이 일하고 있는 공장이 이전하

게 되면서 이사 가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농구팀 선수들도 하나둘씩 그만두게 되면서 더 이상 농구 코치를 할 수 없게 됐다. 해리슨은 현실에 절망한다.

그 후 해리슨은 농구가 아닌 크로스컨트리(자연 지형을 이용한 가혹한 장거리 코스 경주) 코치 제안을 받은 후 모집된 지원자가 단 한 명뿐인 사실에 또다시 실망한다. 그러나 이 절망과 좌절을 통하여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이 농구 코치도 아니고 학교 교사도 아니며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

크로스컨트리에 지원한 유일한 학생인 해나 스콧. 그는 자신을 낳은 아빠가 누군지 모른 채 살아왔고, 자신이 실수로 태어났다는 낮은 자존감과 자아 인식이 있다. 그러나 죽은 줄 알았던 자신을 버린 친아빠를 만나 혼돈하게 된 그때! 피해가고 싶은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 주어진 반전이었다. 이 일

이 기회가 되어 지금까지 해나를 사랑하시고 해나를 기다리신 하늘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드디어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 해나. 만성 천식이 있어 잘 달리다가도 중간에 멈추게 되어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던 그에게 병상에 누워있던 아빠의 선물이 주어진다. 해나가 달리게 될 크로스컨트리 경주의 모든 코스마다 어떻게 달려야 하는지 승리의 비결을 딸에게 들려주는 전직 크로스컨트리 선수였던 아빠. 이를 통해 십자가로 승리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벽찬 감동 속에 오버랩 된다. 해나가 경주하며 모든 위기의 때마다 아빠가 함께 달려주고 또 친히 인도해준 것처럼, 천국 가는 이 경주에 아무리 힘겨워도 주와 함께 끝

까지 달려가리라. 영화 중간 중간에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가?'라는 질문이 이어지는데 해나 스콧은 영화 말미에 이렇게 고백한다.

"언젠가 여러분도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스스로 묻게 될 겁니다. 제 존재가 실수인 것만 같았고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인 듯 느껴졌죠. 그러다 저를 창조하신 분을 만나게 됐을 때 저의 정체성을 찾았답니다. 창조물을 정의하는 건 온전히 창조주의 권리죠. 그분 안에서 저의 정체성을 찾았으니 이제 제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안답니다."

내가 누구의 것인지 아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그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나를 꾸며 줄 어떤 수식어도 필요 없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GNNEWS]

정준영 선교사

심각한 다음세대 성교육 (9)

## 어린 나이의 성경험, 정상적인 삶 어렵게 한다

여성가족부가 전국 초등학교와 도서관 등에 제공한 199종의 '나다음 어린이책'이 남녀 간 성관계를 외설적으로 묘사하고 동성애를 조장하는 등 학부모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그 이후 여가부가 보급한 5곳의 초등학교에서 문제가 된 도서 7종 총 10권이 최근 전격 회수됐다.

문제는 어린이용 동화책뿐 아니라 이미 초·중·고 교과서에서 청소년의 성관계를 권리라고 가르치며, 이에 따라 피임 교육의 분량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민성길(연세의대 명예교수, 신경정신의학 전문의, 의학박사) 교수는 2018년 12월 21일 열린 교과서의 성적 지향, 젠더, 섹슈얼리티, 피임 등 교육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어린 나이에 성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밝히며 청소년들에게 성생활은 성인이 되고 결혼한 후에 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고 밝혔다.

민 교수는 "일찍 성을 알면 불행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임상적 연구들이 많다."며 헤리티지 재단에서 발표한 문헌을 소개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후원으로 1995년 전국의 15~44세 사이 1만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3~14세에 성교를 시작한 소



▲ 중학생에게 성경험을 할 권리(성적 의사 결정권)가 있다고 교육하고 중학생의 선택사항으로 부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다. 출처: 중학교 보건교과서(2015년) 동화사(p.66) 캡처

녀들은 이후 평생 평균 13명 이상의 혼외 성 파트너를 두었고, 그 파트너들도 짧은 시간 내에 자주 바뀌었다. 반면 20세 초반에 성교를 시작한 여성은 평생 평균 2.7명의 성 파트너를 두었다. 그리고 13~14세에 성교를 시작한 소녀들은 이후 삶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정적이었다. 즉 13세 이전 성교를 경험한 경우는 21세 이후 성교 시작한 여성보다 성병 감염이 2배, 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은 약 4배, 한부모(single parenthood)는 3배, 결혼의 불안정 2배, 모자의 가난은 2.5배, 낙태·유산은 3배, 불행은 2배 많았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어린 나이에 성교를 시작하면 이후 결혼하더라도 혼외 성 파트너가 많아진다고

나왔다. 즉 결혼하더라도 불륜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어려서 성경험을 한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는 것이다. 혼외 성 파트너 숫자가 증가할수록 성병 감염률이 높아진다. 혼외 성 파트너가 5명 이상일 경우와 1명(남편)일 경우를 비교해보면 파트너가 많을 경우에서 한부모(미혼모)가 될 가능성 7배로 커지고, 낙태할 가능성은 3배로 커지고, 행복도도 56%에서 37%로 줄어든다.

### 청소년의 성적 모험은 올바른 교육 부재 탓

이에 대해 민 교수는 "청소년이 성적 모험을 하는 이유 자체가 교육부재 때문"이라면서 "청소년은 육체적으로(성호르몬의 영향으로),

감정적으로 두뇌 발달 면에서 또는 지적 측면에서 폭발적 변화와 성장을 보이는 시기이다. 이때 방임되면 인격 발달에 큰 결함이 생기게 된다."며 "이때 잘 훈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교수는 또 "청소년들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성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아이들은 경험을 거듭할수록 쾌락을 알게 되어 자주 성행위를 하고 싶어 할 수 있고, 여의치 않으면 파트너를 바꾸어 하고 싶어 할 가능성이 크다. 점차 성생활이 문란해질 가능성이 크고 성교를 배설 정도로 생각할 가능성도 커진다."고 했다. 또 "황급한 성교에서도 임신과 성병 감염은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임신이나 성병은 모두 청소년이 감당하기 어렵다. 충격 받고 당황하고 죄의식을 가질 수 있다. 임신에 대해서도 적절한 의료에 접근할 수 없어 불법낙태를 시도하기 쉽고, 그 결과 감염, 후유증, 합병증 등으로 건강이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청소년들은 결국 부모가 알고 도와주겠지만, 평생 영향을 주는 트라우마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각종 심인성(무의식적) 정신 장애(신경증, 즉 노이로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끝>

[GNNEWS]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0. 9. 11 ~ 9. 23 (가나다 순)

**개인**  
강을수 김다경 김명숙 김선례 김선희 김유남 김준순 김효영 박현숙 송명애 오지현 윤미자 이화평 정영숙 정옥영 조순희 차상복 차익수 차인순 최근희 최정숙 하은숙 황하임 무명

**교회 및 단체**  
고대교회 고현교회 모리아선교회 복음기도신학연구소 선한목자교회 블루피쉬컴퍼니 새순교회 쉐순회신교단 열매교회 하원교회 오보평강교회 주소망교회 주하나교회 참종양터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0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복음기도신문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